석유화학제품 가격이 갑자기 급등하거나 폭등으로 돌변했다.

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 BTX 가격은 강세를 지속하던니 6월 말 50달러 안팎으로 동시에 급등했고 폴리에스터의 기초원료인 P-X는 2달간 상승세를 지속한 것도 모자라 100달러가 넘는 폭등세를 기록했다. SM, O-X 역시 50달러 정도 급등했다.

석유화학제품 가격이 에틸렌, 프로필렌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약세를 지속했기 때문에 정기보수가 겹치면서 상승할 것으로는 예상됐으나 한달 이상 상승한 것도 모자라 갑자기 급등 또는 폭등할 것으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중국시장을 중심으로 수요둔화 현상이 뚜렷해 공급과잉을 해소할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으로, 초강세로 돌아선 6월 말에도 수요가 갑자기 증가했다거나 공급이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특히, P-X는 중국의 폴리에스터 가동률이 50-60%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폴리에스터 생산량 중 판매비율이 경중 뛰었다는 흔적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PTA의 선물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 외에는 폭등할만한 요인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폭등했다.

중국에서 신규 PTA 플랜트 몇몇이 가동에 들어간다고 하나 가동을 중단하는 PTA 플랜트가 속출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P-X 플랜트 3기가 가동했거나 가동을 앞두고 있어 수익성 악화를 타개할 대책에 고심하고 있는 지경이다.

그런데도 P-X 가격이 2달 가까이 연속 상승한 것도 모자라 폭등세로 돌변한 것은 무엇인가 비정상적인 요인이 작용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중국 무역상을 중심으로 아시아 상업공급 메이저들이 가격조작에 나섰거나 가격카르텔을 시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수급에 큰 변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폭등했고, S-Oil을 비롯한 아시아 상업공급 메이저들이 7월 ACP를 동시에 1400달러 이상으로 높게 요구했기 때문이다.

P-X의 ACP는 2014년 1월 CFR Asia 톤당 1415달러에 합의한 이후 6월까지 단 한번도 합의에 이른 적이 없으며, ACP 자체가 형성되지도 않았다.

상업공급 메이저들이 현물가격 폭락에도 불구하고 수급을 무시한 채 높은 가격을 고집했기 때문으로, 메이저들이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P-X의 ACP가 현물가격 형성의 기준으로 작용하기는 힘들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비단, P-X에 그치지 않고 올레핀, 폴리올레핀, 아로마틱 전반에 걸쳐 가격조작의 흔적이 감지되고 있다.

공정거래 당국은 중국 무역상을 비롯해 아시아 상업공급 메이저들의 가격조작 또는 가격담합 행태를 뿌리 뽑을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한다.

수급이 타이트하면 가격이 올라가고 공급과잉이 발생하면 내려가는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을 무시하는 것은 시장경제체제를 부정하는 몰상식한 상행위로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아로마틱, 국제카르텔 의심된다!

대표이사 원장, 발행겸 편집인 | 박종우, 인쇄인 | (주)삼화인쇄 유성근, 발행처 | 화학경제연구원

주소 : 152-050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111 Jnk디지털타워 1206호 Tel. 6124-6660 Fax. 6124-6669 www.chemlocus.co.kr

●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본지에 게재된 내용 및 자료는 CMRI 소유이며, 무단복사·전제를 금합니다.